

◇ 作品研究 ◇

이 작품은 人生을 사는 代表的인 두 집단 사이에서 發生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 속에서 "가, 나" 그리고 "다"가 表出되었다.

그것은 人生을 어떻게 사느냐가 問題된 다. 그는 지식인이기에 近代의 文明發達의 產物로써 우리 앞에 떨어지는 인간적인 悲哀를 남보다 먼저感知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循環的 日常生活의 고리를 끊고 脱出을 시도 함으로써 自身의 理想을 찾아 좀더 异化된 자연과의 一致를 위해 끊임 없는 葛求와 彷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상대로 되지 않는 狀況 속에서 그는 論念을 배웠고 자신을 잃을지도 모르는 놀음에 몸을 던졌으며 인간의 本能의 인 삶의 欲求마저 他人을 위해 주어 버린다. 과거에는 화려했건, 지금은 불락한 처지가 됐건, 그들은 처음부터 광대였다.

그들은 사색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에 무관심 했으며 다만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주워 먹으려 했을 뿐이다.

그들은 맹인이었다. 그들은 마음의 창이, 사색의 창이 닫힌 것도 모른채 다만 인간 뿐으로 그도록 순수하게 사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의 形態가 무엇이든지간에 그들은 모두同一한 죽음을 맞는다.

歴史의 산물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딪쳐 오며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고 또 그 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죽음은 끈 새로운 生. 죽음은 自身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삶의 方法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소리

기획: 한 철

여기 조그만 극장의 문을 연다.
진지하고 순수해 지려는 청음들이 모여
하나의 결실을 이루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뿐,
우리는 다만 진실해 지려한다.
누가 그랬던가?
『연극은 진실된 작업이다』라고.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공연을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 신입생의 辭 ◆

연극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대 뒤에 우리 풀다구들은 있었다.
세상 태어난 후 가장 맘홀린 기간이었다.
중대극회의 화염속에
우리들의 대학생 활동을 먼저본다.
바보속의 천재는 바보이기에.....

엄 세 범 한 배 성
이 길 원 황 정 순
양 승 멘

— 일 동 —

回	年 證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태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4	1970년 5 : 15	"聖者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무엘·베케트 作	김양기
6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霓虹 爽화 * 유조명 作 담배해독에對해서 * 안본 폐·흡·작 황금단지(로마극) * 프리우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 사무엘·베케트 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7	1971년 11 : 4, 5	처녀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8	1972년 5 : 25, 26, 27	생·암·파·티 * H. 펀디 作	한영재
9	1973년 5 : 21, 22, 23	이시시미비의 결혼 F. 페렌마트 作	고봉인
10	1973년 10 : 25, 26, 27	왕 H. 펀디 作 기도(소극장) F. 아라발 作	차현재
11	1974년 5 : 27, 28, 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 까류 作	정종화
12	1975년 3 : 10, 11, 12 1975년 6 : 9, 10, 12, 13	악마와 물 W. Arving 作 (신입생 환영) 싸울터의 산책 도스또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3	1975년 10 : 29, 30, 31	비리안과 방파법 Max. Frisch	안홍순
14	1976년 3 : 17, 18 1976년 6 : 1, 3, 4	보석과 여인 이강재 作 (신입생 환영)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탈리 作	김득남 김득남
15	1976년 10 : 25, 26, 27, 28	햄 장·클로드·반·이탈리	김영덕
16	1977년 3 : 16, 17, 18	출발 유대성 作(신입생 환영)	안홍순
17	1977년 6 : 15, 16, 17, 18	에쿠우스(EQUUS) 피터 쉐터 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에쿠우스(EQUUS) 피터 쉐터 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7	Counter Point Olov Hartman 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에쿠우스(대학연극제 참가) 피터 쉐터 作	김영덕

중대극회 제4회 신입

이 강 백
재 호 연출
한 기획

1979년 3월 29(木), 30(金)일

승전대학교

격려사



79년의 새로운 봄을 맞아 피어오르는
예술창조의 정기를 스미고 중대극회는
신입생을 위한 또 하나의 작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연 작품은 창작극으로서
오랜만에 대하는 중대극회의
오묘한 예술감정의 표현이
될 것이다.

새로워 지는 승천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적 창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제까지 쌓아온 영광과 전통의
긍지를 유감없이 발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무쪼록 많은 신입생들의
적극적 참여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승전대학교 총장

고범서

□연출□



정재호

가장 심오한 허위。
보이지 않는 연극。
인간을 보기 보다는 물질의 세속성을 본다.
커다란 실망의 아동이
조그만 그늘에 가리운다.
결국은 심한 PARADOX의 연속에
어거지로 떠맡은 채로
기회를 잃었다.
한참의 이력서를 오늘도 반복한다.

• 가: 흥여석

아./~

• 나: 서태형

의로운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오만불손한 이 세상에
침을 뱉어 주고 싶다.
가식의 가면을 쓴 인간을
때려 누이고 싶다.

• 다: 조성현

이 희열!
이것이 연극의 전부다.
몸이 가루가 되어 관객에게
뿌려지는 그것이다.

STAFF



- 기획: 한철
- 조연출: 이용섭
- 무감: 정충한
- 의상: 이수복
- 소품: 김경혜
- 진행: 민승기, 이정일
- 조명: 황성선, 이병국
- 분장: 지숙
- 장치: 조남학
- 효과: 장덕래

※ 새로운 중대극회 신입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의 번민속에서
젊음의 환희를 찾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중대극회장 한철

생활영 공연

성

P.M. 4:00, 6:00

대학극장